

섬의 모든 것을
나타내는
단 하나의 소리
시옷

전라남도 진도 가사도

LIFESTYLE
RESOURCES
PEOPLE
TRAVEL
SPECIAL

VOL 22

NEWS & ISSUE



섬의 모든 것들
 나타내는 단
 하나 소리
 시냇 -



섬단어사전

갱번

적박한 섬살이를 가능케 해준 곳이 갱번이다. 비료를 뿌리지 않아도 철이 되면 어김없이 미역이 자라고 톳이 자랐다. 미역은 팔아서 돈을 만들고, 가사리는 뜯어서 우무를 만들어 허기진 배를 채웠다. 물으로 나간 아이들 학비를 마련하고 혼사를 앞둔 딸의 결혼 비용을 책임져준 것도 갱번이었다.

애초에 바다가 육지에 비해 생물다양성이 뛰어난 것은 인간에 의해 소유될 수 없는 자연이었기 때문이다. 마을어장이 경제적 사회적 생태적으로 지속될 수 있었던 것도 공동소유, 그것도 개인에게 처분할 권리를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갯벌과 바다의 다양한 가치와 생태계 유지 기능을 인정할 때에야 경제적 가치도 지속되고 높아진다. 마을어장이 '사유'가 아니라 '공동체 소유'가 되어야 하는 이유다.

*출처 : 김준, 바닷마을 인문학, 따비(2020년)



갱번이 궁금한 아일랜드는 QR코드를 확인해 주세요

Contents

vol.22

LIFESTYLE

섬, 일상을 보여주세요

- 04 불심이 깃든 가사군도 전설
- 06 갯발을 나누다
국내 첫 번째 에너지 자립섬
- 07 장수하는 공항마을 어르신들

RESOURCES

섬, 무엇이 나고 자라나요

- 08 1월부터 12월까지,
가사도 땅과 바다에서 나고 자라는 모든 것

PEOPLE

섬,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 10 아저씨로 불리고 싶은 섬 학교 선생님, 최학균 복식지원강사
- 12 가사도 열정강사, 최정인 돌목리 행복마을 위원장

TRAVEL

섬, 그곳을 알려주세요

- 14 진도 가사도 투어 가이드
- 16 넓은 바다와 그 위에 떠 있는 섬들이 한 폭의 그림같은 가사도
- 18 가사도에서 만나는 민박과 식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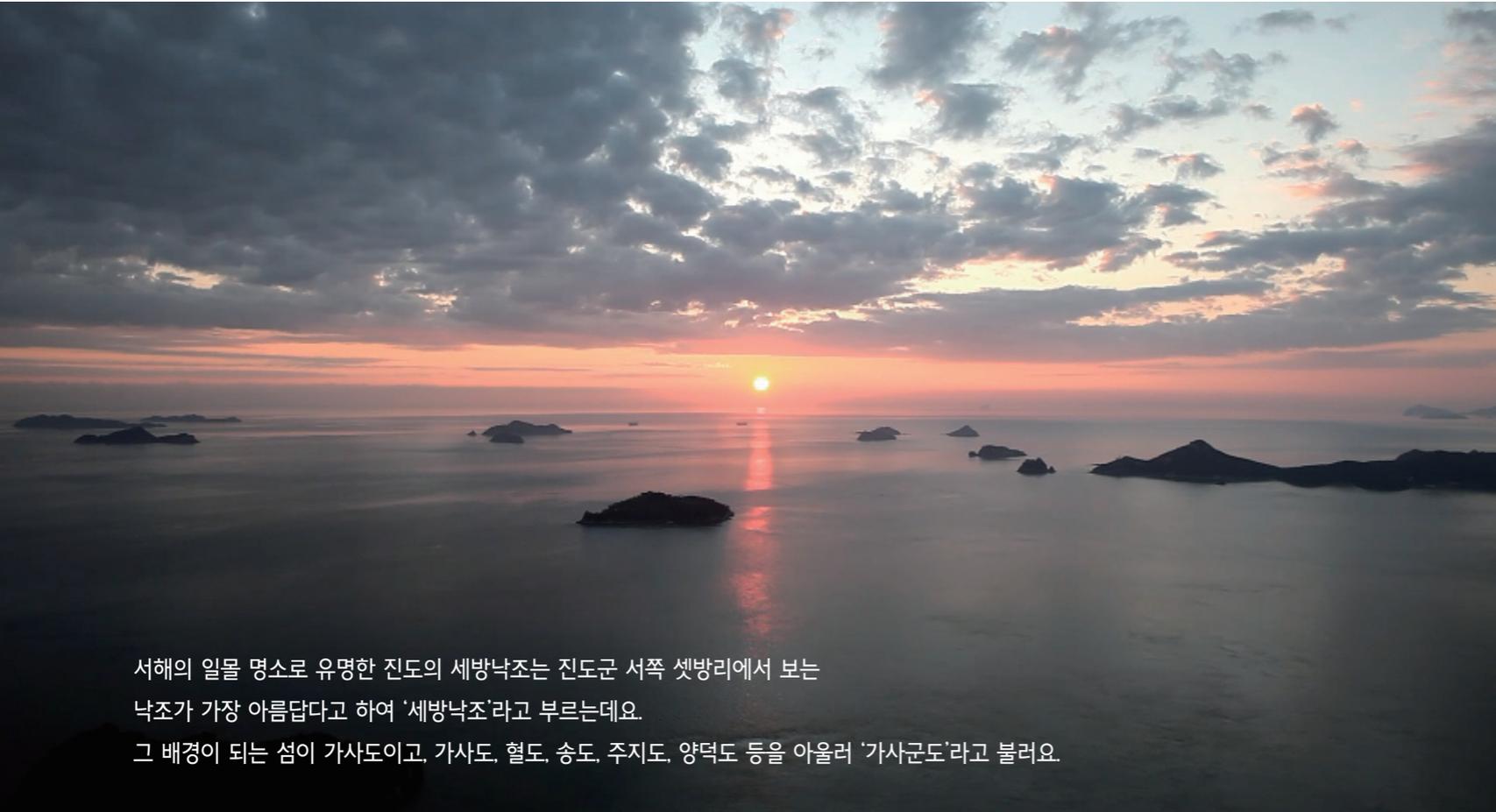
SPECIAL

섬, 경험을 공유해요

- 22 섬이 품은 큰 뜻, 인간이 알까.
조도면 가사도

LIFESTYLE

섬. 일상을 보여주세요



서해의 일몰 명소로 유명한 진도의 세방낙조는 진도군 서쪽 셋방리에서 보는 낙조가 가장 아름답다고 하여 '세방낙조'라고 부르는데요. 그 배경이 되는 섬이 가사도이고, 가사도, 혈도, 송도, 주지도, 양덕도 등을 아울러 '가사군도'라고 불러요.

불심이 깃든 가사군도 전설

가사도는 모양이 가위의 전라도 말인 가새를 닮아서 '가새섬', '가사도'로 불렸다고 해요. 다르게는 스님의 가사(법의)가 떨어져 생긴 섬이라는 전설도 있는데 내용이 참 흥미로워요.

진도군 지산면 지력산 남쪽 산자락에 있던 절 동백사라는 절에서 수도하던 스님이 있었는데, 가난한 섬에서 허기진 스님이 서쪽바다에 떠 있는 물새를 보고 배고픔을 이기지 못하고 잡아먹었다고 해요. 물새는 스님의 정진을 시험하기 위해 보내진 부처였고 부처의 노여움을 산 스님은 벼락을 맞아 죽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를 후세에 알리기 위해 지력산에서 보이는 바다에 섬 무리를 만들어 놓았다고 해요.

세방낙조 사진

탐을 닮은 불도, 큰스님인 주지도, 배낭을 짊어진 작은 스님인 양덕도, 목탁과 목탁을 두드리는 채는 소동도와 대동도로 변했다고. 주변에도 광대도, 송도, 혈도, 방구도는 큰 스님을 맞이하기 위한 중생들이 변했다는 전설과 함께 섬들의 이름이 전해지는데요. 가사군도는 큰스님이 가사와 장삼을 걸치고 나서자 여기저기서 중생들이 법문을 듣기 위해 '야단법석'을 피우는 형이라고 하고, 이름처럼 불교적 색채를 많이 띠는 섬이에요.

덧붙여진 이야기겠지만, 한 도인이 "가사도는 불도의 섬이기 때문에 고기잡이를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해요. 실제로 최근까지 가사도나 인근 군도에서는 미역이나 툇 등 해조류에 의해 살았고, 고기잡이가 발달하지 않은 섬이었죠. 조류가 거칠고 계절풍을 피할 수 없어 어장을 하기는 어려웠겠지만 미역과 툇 등 해조류가 빈자리를 충분히 메꿔준 이유일거예요. 이러한 전설이 인연이 되어 한 스님은 궁항리에 통일기원시비를 세우기도 했어요.



궁항마을 평화통일기원비



주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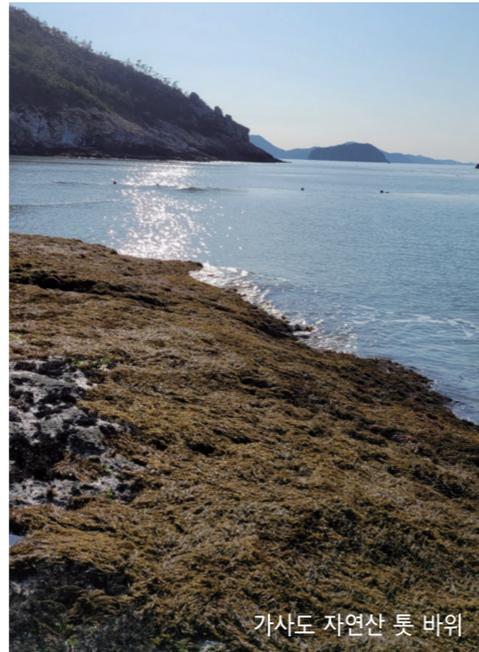
양덕도

LIFESTYLE

섬. 일상을 보여주세요

갯밭을 나누다

가사도 자연산 미역과 툇은 가사도 주민들의 주 수입원인데요. 툇은 품질이 좋아 전량 일본으로 수출하고 있고, 자연산 미역은 한 뭇(20가닥)에 20여 만 원이 넘는다고 해요. 그런 만큼 갯밭을 두고 주민 분쟁이 생기기도 하여 10월 중순이면 공개입찰을 통해 갯밭을 나누는데요. 우선 해안을 20여 곳으로 나누고, 자연산 미역을 채취할 수 있는 조건대인 '돔'을 주민들에게 공개입찰해 일 년 동안 채취권을 주는 방식이에요. 1980년대 초반 보통 1돔은 10만 ~ 20만 원에 낙찰되었고, 경우에 따라 30만원에 낙찰되기도 했다고 해요. 지금도 주민들은 공개입찰로 갯밭을 나누고 그를 통해 얻은 수익금은 마을기금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가사도 자연산 툇 바위



자연산 미역 건조 모습

국내 첫 번째 에너지 자립섬

육지와 떨어진 섬에서는 물과 전기로 인한 불편함이 있는데, 가사도도 마찬가지로 전기가 부족했다고 해요. 자체 내연발전기만 돌려 전기를 생산해내던 때는 냉장고나 에어컨을 집 안에 들일 때도 한전에 문의한 후 구입했다고 해요. 섬 안에서 생산되는 전력량이 한정적이다 보니 주민들의 불편함도 심이기 때문에 감내해야했던 거죠.

그러다 2012년 가사도는 국내 최초로 '에너지 자립섬'으로 지정되었어요.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고 풍력발전기와 태양광 발전단지를 조성해 생산된 상시 전력을 주민들이 소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주민들은 전기부족 걱정에서 해방되었죠.



가사도 풍력 태양광 발전 사진출처 : 진도문화원

장수하는 공항마을 어르신들

가사도에서 가장 작은 마을인 공항마을. 활의 목을 닳았다고 하여 활목, 공항으로 불리는 마을인데요. 공항마을 어르신들은 가사마을이나 돌목마을에 비해 장수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가 공항마을 어르신들은 매일 점심시간이면 마을 회관에 모여 식사를 함께하신다고 해요. 지금은 마을회관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 중이라 회관 바로 앞에 위치한 한 이양월 어르신 댁 뒷마루를 이용하고 계시는데요. 식사 때가 되면 삼삼오오 모이는 어르신들의 손에는 함께 나눠 먹을 음식 들려있어요. 가사도 공항마을식 *포트럭(potluck)파티인 것이죠.

*포트럭(potluck): (여러 사람들이) 각자 음식을 조금씩 가져와 나눠먹는 식사

“우리가 하루 한 끼라도 혼자 먹지 않고 이웃과 함께할 수 있는 데에는 이장님 내외의 덕이 크다”는 마을 어르신들. 매일 이장님이 어르신들 점심을 준비해주고, 어디를 가건 손수 차로 모셔다 드리니 공항마을의 자랑거리는 이장님이라고 입을 모아 이야기하십니다. 마을일도 살뜰히 챙기는 공항리 조상일 이장님과 오순도순 이야기를 나누고 계신 어르신들을 뵈니 공항마을을 장수비결이 여기에 있음을 알게 되네요.



공항마을 조상일 이장님과 주민들

RESOURCES

섬, 무엇이 나고 자라나요.

1월부터 12월까지.

가사도 **땅** 과 **바다** 에서 자라는 **모든 것**

바다

- 3월~5월 툇
- 4월~6월 가사리
- 6월~7월 뜰북
- 6월~8월 자연산 미역
- 연중 전복, 낙지

밭

- 3월~5월 대파
- 6월~8월 태양초 고추



PEOPLE

섬.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아저씨로 불리고 싶은 섬 학교 선생님

초학급 복귀지원강사



Q1 어찌 사셨습니까.

가사도에 온지는 4년이 됐다. 충남 부여에서 교직생활을 하다가 일찍 퇴직을 하고 고향을 벗어나 다양한 생활을 하고자 그 출발을 섬으로 잡았다. 가사도의 편안한 느낌이 좋았다. 코로나 기반시설조차 개발이 안됐지만 섬 자체가 좋았다. 섬 주민들이 외지인에 대한 경계심이 있을 것 같아 학교 근무를 고민했다. 집사람이 먼저 가사분교 복식지원강사로 일을 하게 됐다. 집사람의 근무기간이 종료되고 내가 다시 복식지원강사로 일을 하고 있다. 1년을 계획했지만 **정이 붙어 살다보니 벌써 4년**이 되었다.

Q2 도시를 벗어나 섬으로 왔는데 특별히 섬에 적응하는 방법이 있었나.

눈으로 보고, 먹고, 자고 하는 것이 여행이라고 말하는데 보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직접 느끼고 그들의 삶속에 들어가 생활을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선생'이라는 이름표를 떼고 **그냥 '아저씨'로 주민들과 부딪치고자 했다.** 자전거를 타고 마을을 돌면서 툇도 넣어주고, 이웃에 도움이 되고자 했다. 아무것도 몰랐던 첫 해를 보내고 시간이 지나다 보니 이제는 봄에 달래, 두릅, 취나물이 어디에서 나는지 알게 되고 그렇게 주민들과 정을 나누게 되었다. 정은 스며든다.

Q3 섬 학교에 근무하면서 느낌 보람이 있나.

교직에 37년간 근무했지만 안락한 삶을 차치하고 섬에 와 복식지원강사로 일을 하다 보니 새롭게 학교에서 배우는 점이 많다. 아이들과 함께하다 보면 주는 정보다 받는 정이 많다. 우리 분교 학생이 3명인데 모두 다문화 가정이다. 그래서 **다문화 가정 어머니들에게 한글교육을 시도했다.** 전남 교육청 신문에 그 활동 내용이 실렸던 적이 있다. 보람있었다. 하지만 그 어머니들의 삶은 일에 치여 살더라. 작년에는 교재까지 준비했지만 한글교육은 많이 하지 못했다.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기도 하다.

Q4 섬 학교 학생들은 점점 없어지는데 섬 학교가 갖는 의미가 무엇인가.

학교는 주민들과 고향을 찾는 방문객들이 모이는 곳이다. **학교는 정신적 모임의 장소**라고 생각한다. 학교가 없어지면 정신적인 허탈감이 생길 것이다. 주말, 국경일 등 쉬는 날이면 졸업생들이 찾아온다. 폐교가 돼 학교가 없으면 그마저도 어려워질 것이다. 청년회에서는 학교운동장에서 족구를 한다. 학교는 마을에서 추억을 살리는 공간이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런 공간이 남아있어야 하지 않나

Q5 가사분교의 특징이 있다면.

우리 **학생들의 외가는 모두 필리핀**이다. 그렇다보니 동료의식이 있고, 학교차원에서 장학금이 있다. 분교 학생들은 3명이 전부지만 선생님들과 나누는 정이 크다. 다같이 모여서 점심을 먹기 시작하면서 김치를 못 먹던 아이들이 김치를 먹게 되고, 한국의 반찬문화를 배우게 되었다. 처음에는 어머니들의 고향인 필리핀 식문화에 더 익숙했던 아이들이었다. 또, 가사분교는 본교인 진도서초등학교 학생들과 주기적인 교류가 있다. 일주일에 한 번씩은 나와 춤 대결도 한다. 제일 부끄러워하던 아이가 이제는 먼저 춤을 추기 시작했다.

PEOPLE

섬.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Q1 어찌 사셨습니까.

25살에 가사도로 시집오면서 죽 살았다. 내 고향이 흑산도라 섬에서 살게 될 일은 생각지도 않았다. **결혼 후 5년의 섬 생활을 약속했지만 아직까지 살고 있다.** 남편은 발전소에서 근무하고 나는 30대에 젊은 여성 이장을 맡으면서 마을 일을 시작해 공부도 많이 했다. 그러면서 진도 행복한 섬마을(행정안전부 지정 정보화 마을)이라는 이름의 행복마을 추진위원장도 맡게 되었다.



가사도 열정 강사 
최정인 주민

Q2 2019년 가사분교 병설 유치원 개원에 노력을 많이 했다고 들었다. 소감이 어떠한가.

유치원 설립에 큰 보람을 느낀다. **마을 변화의 시작**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아이들은 다 성장했지만 유치원도 다니지 못했다. 지금 섬에 있는 아이들이 10명도 안되는데 모두 다문화 가정 아이들이다. 한글부터 더 적극적인 교육 지원이 필요하다 느꼈다. 주민들이 교육청에 수년 동안 요청했다. 다행히 교육청에서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줬고, 지금 3명의 아이들이 좋은 시설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Q3 가사도만의 특징이 있다면 무엇인가.

가사도는 매년 10월이면 갯벌을 나눠 공개입찰을 한다. 입찰을 통해 얻은 수익금은 연말에 주민들에게 배당해 준다. 가사도는 큰 바다지만 고기가 지나가는 곳이라 잡히는 생선이 적어 소득으로 이어지지 않는 대신에 **툰, 미역, 뜰복 등 해조류가 많이 난다.** 그래서 툰 자반, 툰 김치, 툰 장아찌 등 툰을 이용한 음식이 많다. 6월을 시작으로 7-8월이 되면 마당은 툰과 미역 차지가 되고, 도로에도 툰과 미역을 말리느라 편도 한 차선만 이용한다. 또 취나물, 세발나물 등 봄나물이 많아 가사도 봄철 섬 밥상에는 툰과 나물이 빠지지 않는다.

Q4 가사도 주민으로서 앞으로 이루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섬이 대부분 그렇겠지만 가사도에는 고령인구를 위한 시설이 없다. 섬에 **주간보호센터**를 만들고 싶다. 마을별로 수요가 있다. 2구 공항마을은 이장님 내외가 그런 역할을 하고 계신다. 마을 어르신들이 매일 모여 같이 식사도 하고 이야기를 나누다보니 장수하신다. 어르신들은 도시로 나가서 요양하는 것 보다 친숙하고, 익숙한 장소가 필요하다. 그러니 생활하시던 섬에서 그런 시설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또 한 가지는 걷는 길, **탐방로가 필요하다.** 섬을 둘러보고 갈 수 있는 길이 정비되면 좋겠다.

Q5 가사도를 여행하는 사람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장소가 있나.

돌목해수욕장과 등대는 꼭 추천한다. 등대 앞 데크길에서 보는 일몰은 정말 멋지다. 다음으로는 일제강점기에 광물 수탈지로 그 흔적이 남아있는 십자동굴이 있다. 이곳들은 둘러보고 가시길 권한다. 또 가사도에 염전이 한 곳뿐인데 소금이 짜지 않다고 한다. 진도 쪽에는 염전이 거의 없는데 가사도에는 염전이 있는 특징이 있다.

TRAVEL

섬, 그곳을 알려주세요.

진도 가사도 투어 가이드



가사페리호

항차	출발시간 하절기 4. 1. ~ 9. 30. 동절기 10. 1. ~ 3. 31.	
	쉬미 → 가사도	가사도 → 쉬미
1	07:00	08:10
2	11:30	13:00
3	하 16:00 동 15:00	하 17:10 동 16:10

쉬미선착장

- 진도군 진도읍 서부해안로 411
- 문의** 서진도농협 061-542-5383~5
- 요금** 4,500원 (성인 1인)
- 소요** 60분 소요

섬사랑 10·13호

항차	목포출발	쉬미	저도	광대	송도	혈도	양덕	주지	가사도
1	08:30	11:00	* 승선객 있을 시 접안						12:20

가사도(12:20) → 소성남 → 성남 → 옥도 → 내병 → 외병 → 놀옥 → 갈목 → 진목 → 창유(15:32) → 울목 → 라배 → 관사 → 소마 → 모도 → 대마 → 관매 → 동거차 → 서거차 → 울목(18:30 이후) 도착

목포항연안여객선터미널 목포시 해안로 182

- 문의** 해광운수 061-283-9915
- 요금** 목포 - 가사도 : 12,500원 (성인 1인)
가사도 - 목포 : 11,400원
- 소요** 목포 출발 시 3 ~ 4시간 소요
쉬미 출발 시 1 ~ 2시간 소요
- 승선객 있는 섬만 거쳐오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아요

아일랜드 제이호 (관광 유람선)

하절기 10:00, 13:20, 15:20, 낙조출항(일몰 90분전 출발)	동절기 10:00, 13:20, 낙조출항(미정)
--	-----------------------------------

운항경로 : 쉬미항 출항 → 저도 → 광대도 → 송도 → 혈도 → 주지도 → 양덕도 → 방구도 → 쉬미항 입항

쉬미선착장_진도관광유람선매표소 진도군 진도읍 서부해안로 411

- 요금** 25,000원 (성인 1인), 20,000원 (13세 이하) *진도군민 5,000원 할인
선박대선료 1,400,000원
- 소요** 약 1시간 30분 소요

TRAVE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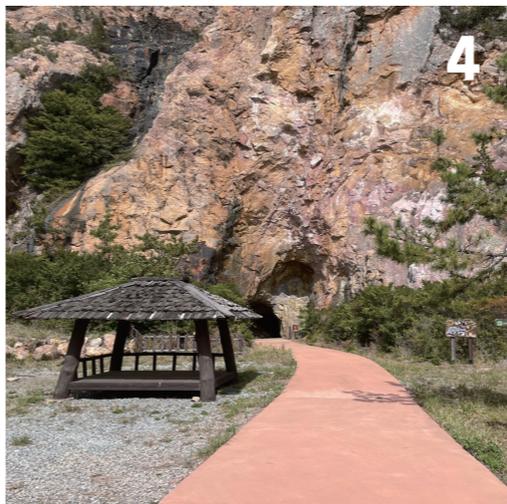
섬, 그곳을 알려주세요.

넓은 바다와 그 위에 떠 있는 섬들이 한 폭의 그림같은 가사도

진도군 가사도는 가사군도 중 가장 큰 섬이에요. 가사, 공항, 돌목 마을을 가지고 있고 주지도, 양덕도, 광대도, 혈도 송도 등 크고 작은 섬들과 조도면에 속해있어요. 이웃 신안의 섬들과 함께 이름과 관련한 전설이 내려오기도 하는데(주지도의 주지 수님이 가사도에서 가사를 수한 후 예를 올렸다는 이야기) 동네 어른들은 “가세 가꼬온나~” 가위를 닦아 가사도라고 부르기도 했대요. **가사도의 볼거리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돌목마을에 들어서 3분 남짓 내려가면 오른쪽 **1 돌목 해변** 옆으로 여러 채의 한옥들이 보여요. 그 한옥들을 뒤로 하고 마을 아랫길로 내려가면 돌목해변을 만날 수 있어요. 깨끗하고 하얀 모래 그리고 모래의 유실을 막아주는 대나무, 소나무와 함께 탁트인 바다가 보이는데요. 작은 언덕숲이 해수욕장을 감싸고 있어 짝조름한 바다의 내음과 향긋한 풀내음을 같이 맡을 수 있습니다. 가족단위로 가볍게 즐기는걸 추천드려요.

2 가사도등대 돌목마을로 가는 도로입구에서 1시 방향을 가리키는 표지판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 길을 따라 5분 남짓 올라가면 공원으로 꾸며놓은 건물을 만나는데, 그곳에 바로 가사도등대가 있습니다. 1915년 무인등대로 초점등했다가 1984년 7월 유인등대로 탈바꿈한 가사도 등대. 푸른 잔디와 데크 길을 사복사복 밟아 등대탑으로 올라가면 오른쪽옆으로 거북섬 마도가 보이고, 탐곡대기에 다다르면 대소승도가 바로 눈앞에 보여요. 가사도 최남단에 위치해 서해와 남해가 교차하는 해상교통의 중심해역을 열심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3 포토존 등대공원 오른편 임도를 따라 올라가다보면 거북섬 마도를 배경으로 한 액자모양 포토존이 자리하고 있어요. 마도와 비슷한 모습으로 앉을 수 있는 돌들도 함께 자리하고 있어 귀여움이 묻어납니다. 왼쪽 옆으로는 등대와 대소승도가 보이고, 오른쪽 옆으로는 멀리 신안군 섬들이 보이는 널찍한 장소예요. 가사도 큰 바다가 한눈에 들어와요. 다만 햇빛 가려줄만한 곳은 없으니 모자나 썬크림을 꼭 챙겨가주세요.

포토존을 지나서 가파른 경사로를 따라 도보 **4 십자동굴**로 10여분 올라가면 큰 정자의 오른쪽 옆으로 동굴입구가 보여요. 1920년 조선민보의 내용처럼 일제강점기 규석을 채굴했던 동굴이에요. 동굴을 들어서면 오른쪽 편에 맑고 깊은 물이 있는데, 몇 해가 가물어도 물이 마르지 않아 예부터 가뭄이 들면 동네에서부터 물동이를 이고지고 물을 날라 썼다고 해요. 동굴 안쪽으로 조금 더 들어가면 사방으로 굴이 나있는데 좌우앞뒤 십자가로 뚫려있어 십자동굴이라고 불러요. 앞쪽으로 나있는 굴은 처녀강 옆길로 이어져있다고 해요. 사용하지 않는 광산이기 때문에 네 갈래로 나뉜진 굴에만 들어가도 잠자고 있는 박쥐를 만날 수 있습니다. 아쉽게도 현재는 출입금지라 들어갈 수 없으니 참고하세요.

5 처녀강과 전망대 십자동굴 왼쪽으로 나있는 임도를 지나 정자가 보일때쯤이면 데크길이 시작돼요. 데크길 옆으로 작은 연못이 있는데 처녀강이라고 불러요. 옛날 옛적 주지도 청년이 가사도 처녀를 좋아해 섬을 헤엄쳐 매일같이 만나러 갔대요. 그러던 어느날 처녀가 임신을 했고 총각은 두려움에 그 처녀에게 발길을 끊었다고 해요. 처녀는 노승봉에 올라 매일같이 청년을 기다리다 결국 지쳐 못에 빠져 죽고 말았는데 그곳을 처녀강이라고 부른답니다. 십자동굴 벽면에 처녀 형상이 나타나기도 한대요. 그리고 계단을 올라가면 만나는 전망대! 진도 큰바다와 멀리 신안 섬들 가사군도 무인도 그리고 돌목해변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어요. 바위에 데크를 놓았기 때문에 그늘이 없어요. 모자와 썬크림 꼭꼭 챙겨주시는거 잊지마세요.

TRAVEL

섬, 그곳을 알려주세요.

① 새롬민박(한옥펜션민박)

돌목마을 입구에 위치한 한옥펜션이다. 입구에는 강아지 2마리가 반겨주고 시멘트마당이 넓게 펼쳐져있다. 식사는 따로 제공되지 않지만 주방 시설이 갖춰져 있어 음식 조리가 가능하다. 숙박비용은 한옥 독채 기준 25만원에서 30만원, 10명 미만은 숫자에 맞춰서 가격 조정이 가능하다.

📍 조도면 가사도 돌목길 145
☎ 010-6616-2407



가사도에서 만나는 민박과 식당



② 가사도민박

가사도 선착장에서 내려 오른쪽 길로 걷다 보면 보이는 민박집이다. 주황색 벽돌로 지어진 테라스가 있는 2층 건물이고 객실은 2개로 숙박비용은 1박에 5만원이다.

📍 조도면 가사도 돌목길 60
☎ 010-5800-5631



③ 우리원민박

돌목마을에 있는 한옥민박집으로 마당을 둘러싼 돌담과 작은 정원이 꾸며져 있어 찾기 쉽다. 숙박비용은 2인 기준 1박 5만원이고, 2인 이상은 추가요금이 발생한다.

📍 조도면 가사도 돌목길 140
☎ 010-6652-8212



④ 우리원식당

돌목마을에 있는 주황색건물의 식당이다. 메뉴는 가사도의 특산물인 툷 요리와 각종 나물들, 해산물이 곁들여 나오는 백반정식 한가지다. 가격은 8천원으로 원하는 종류의 반찬이 있을 때는 미리 전화로 주문이 가능하고 그만큼의 추가 요금이 발생한다.

📍 조도면 가사도 돌목길 179
☎ 061-542-8212



⑤ 미금상회

가사출장소를 지나 보이는 파란색 간판의 건물이 미금상회다. 각 물건별 가격표는 따로 부착되어 있지 않으니 계산대 옆 가격표를 확인 후 구매해야한다.

📍 조도면 가사도 가사도길52
☎ 061-542-5607



가사도 밥상

해조류가 많이 나고 특히 툷을 이용한 음식이 많은 가사도는 밥상위에도 툷은 빠지지 않는다. 툷 자반, 툷 밥, 툷 김치까지 툷을 이용한 음식에 제철 생선까지 맛 볼 수 있다. 게다가 가시리된장국은 구수하고 시원한 맛을 자랑해 고향집 어머니의 밥상을 연상케 한다. 특히 봄철에는 가사도 들에서 자란 제철 나물과 산 두릅을 맛 볼 수 있다.

- ①가사도 4월 섬 밥상.
- ②주민들이 즐겨먹는 콩나물 툷 밥.
- ③툷 김치

SPECIAL

섬, 경험을 공유해요.

섬이 품은 큰 뜻, 인간이 알까 조도면 가사도



출처 : 김준, 섬문화답사기 '진도·제주편', 보누스, 2019년
7. 가사도 스페셜(섬이 품은 큰 뜻, 인간이 알까 조도면 가사도)

가사도(加沙島)라는 기록은 《대동지지》에서 확인된다. 그 전에는 '加西, 加士, 家沙, 袞裳' 등으로 등장했다. 가사도는 모양이 가새를 닮아서 '가새섬'이라 했는데, '가사도'로 불렸다고 한다. 가새는 가위의 전라도 말이다. 또, 지산면 가학리(加鶴里) 서쪽에 위치해 가서(加西)라고 부르기도 했다. 조선시대 우수영에 딸린 수영(水營)이 있었으며, 봉산(封山)으로 기록되기도 했다. 조선시대 초 섬은 해안 방어를 위한 군사기지나 궁궐이나 배를 짓는 등 나라에서 필요한 목재를 얻기 위해 벌채를 금지하는 산으로 생각했다. 가사도도 마찬가지였다. 세종 때는 조도, 평도와 함께 병선용 소나무 보호지구로 지정되기도 했다.

섬 전체가 규석광으로 일제강점기 일본군이 진도, 해남 일대에서 젊은 사람들을 동원해 광물을 수탈하기도 했다. 당시 규석을 캐던 광산이 생채기처럼 마을 뒷산에 남아 있다.



가사도에서 본 주지도와 양덕도



저도



광대도



할아버지 당



할머니 당



가사도 초분

김대중 대통령을 낳은 어머니의 섬

가사도에 처음 들어온 입도조(入島祖. 처음으로 섬에 들어온 사람)는 인동 장씨였다. 그 전에 추씨와 고씨가 살았다는 이야기도 있다. 《조도면지》에 따르면, 김대중 대통령을 낳은 어머니 장수금(張守今. 1893~1971년)은 가사도 인동 장씨 6세손 장지숙(張之淑. 족보에는 張有碩)이 하의도에 소금 일을 하러 갔다 머물며 낳은 둘째 딸이다. 갯벌이 발달한 하의도에서 살았던 탓일까, 대통령 어머니의 태호는 '뺨섬네'였다고 한다. 가사도에는 아홉 개의 산 봉우리가 있는데 이를 연결하면 왕(王)자가 된다고 한다. 또 남자를 낳으면 왕이 나오지 않고 여자를 낳으면 왕이 나온다는 이야기도 전한다. 실제 가사도에서 건너간 인동 장씨가 딸을 낳고 그 딸이 낳은 아들이 대통령이 되었으니 딱 들어맞는다.

여자숙곳을 내걸고 도깨비를 내쫓다

'불근안잔등'의 '안골골창'에 초분이 있었다. 큰 마을이 한눈에 들어오는 양지바른 곳이었다. 그 인근에는 1980년대 중단되었다는 당집도 있다. 10월에 지냈던 당제는 나중에 정월로 옮겨졌다. 부정하지 않은 깨끗한 사람을 선정하고 길일을 택해 당제를 지냈다. 길일은 상고 안 든 날, 도축을 하지 않는 날, 초상이 없는 날 등을 말한다. 제주는 목포 시장에서 제물을 준비해 음식을 장만했다. 그리고 당집에 올라 "앉아서 천 리 보고 만 리도 보시니 동네 일 모도 사고 없이 잘살게 해주쇼."라고 하며 당제를 지냈다.

가사도의 당집은 석실로 만들어져 있다. 당집이 남자들을 중심으로 지내는 마을의례라고 한다면 여자들을 중심으로 지내는 '도깨비'이 있다. 2월 초하루 가사도의 여성들이 모여서 달거리를 한곳을 장대에 꽂고양판, 쟁반 냄비 뚜껑, 나무 막대기, 양철동이, 놋그릇, 바가지, 솔뚜껑, 식기, 주전자, 양재기 등을 들고 두드리며 마을을 돌았다. 나중에는 북, 장구, 징 등이 등장했다. 사흘간 지내는데 마지막 날은 마을을 보면서 절을 한다. 이것은 도깨비가 절을 하고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어류포로 나가서 나무로 깎아 만든 배에 액을 실어 보내면 끝난다. 귀신을 몰아내는 축귀제의의 하나다. 지금은 아쉽게도 당제나 도깨비굿 모두 중단되었다. 중단되기 전에는 당제 경비를 '큰새 땡이섬'의 갯벌(갯밭)을 팔아서 마련했다. 이 섬은 가사도 세 마을이 공동으로 해조류를 채취한 섬이다.

NEWS&ISSUE

섬, 소식을 전해드려요.

1

제4회 국제 청년 섬 워크캠프 여수 개도 현장 답사



지난 4월 19일에는 국제워크캠프기구 실무 담당자와 함께 「제4회 국제 청년 섬 워크캠프」 개최예정지인 여수 개도로 현장답사를 다녀왔습니다. 개도의 화정초등학교와 마을을 둘러보며 워크캠프 개최를 위한 프로그램 점검을 했습니다. 「제4회 국제 청년 섬 워크캠프」는 4월 참가자 모집을 통해 100명의 참가자를 선발했습니다. 오는 7월에 신안 도초도·비금도, 8월에 여수 금오도·개도에서 국내외 청년들과 함께 활동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2

통영 두미도 섬택근무 체험



전남도의 가고 싶은 섬을 벤치마킹하여 추진하고 있는 경남의 살고 싶은 섬 통영 두미도에 섬택근무를 다녀왔습니다. 섬택근무란 위치적 한계를 극복하고 도시민의 섬에 대한 인식 다각화를 위해 섬에서 재택근무를 하며 일상 업무를 추진하는 것입니다. 업무와 함께 두미도의 둘레길 탐방과 경남 살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 추진 상황을 공유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3

제16차 찾아가는 섬 현장포럼 '완도 보길도'



한국섬진흥원은 완도 보길도에서 '제16차 찾아가는 섬 현장포럼'을 열었습니다. '찾아가는 섬 현장포럼'은 섬 주민, 섬 현장 활동가, 섬 전문가와 현장에서 소통하면서 정책 및 진흥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포럼을 통해 섬 주민들은 관광객 확보와 오래된 가뭄으로 인한 용수난 문제의 심각한 상황을 이야기하며 의견을 주고받았습니다.



4

목포 외달도 주민대학 및 주민간담회 개최



지난 4월 26일에는 가고 싶은 섬 목포 외달도의 주민대학과 주민간담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주민대학에서는 가고 싶은 섬 사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 뒤 고흥 연흥도 사무장님께서 가고 싶은 섬 연흥도 사업 이후 관광소득 변화 및 연계 사업 사례를 설명해주셨습니다. 이어 주민간담회를 통해 가고 싶은 섬 사업 추진 시 발생했던 의견 충돌 사례에 대해 공유하고 목포 외달도의 관광주제와 홍보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눠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5

가고 싶은 섬 사업 시·군 업무 관계자 회의 개최



지난 4월 27일에는 2023년 1분기 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 추진상황 점검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전라남도 가고 싶은 섬 시·군 관계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1분기 사업 추진상황을 함께 공유했습니다. 이번 회의를 통해 가고 싶은 섬 사업에 대한 시·군별 사례들을 공유하면서 사업 추진 중 겪는 애로사항이나 문제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해보았습니다.





2023
전라남도 섬발전지원센터